

우유마시기도 교육이다!

김봉석 본회 상무



선진국의 학교급식은 경제성을 떠나 오랜 역사를 두고 국가의 확고한 제도적인 보호하에 실시되고 있다. 각 나라마다의 여건이나 상황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6.25 전쟁 이후 경제사정이 열악했던 1953년, 초등학교 결식 아동의 급식용으로 공급한 것이 그 효시이며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학교우유급식의 시작이 요즘시대에 낯설게 들리는 굶주림을 해소하거나 허약체질의 교정에서 비롯되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그 중요성과 가치는 폄하될 수 없다.

한 인간의 바람직한 식습관의 형성으로 평생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이 깃들도록 하는 문제는 국력향상과도 관계가 있다. 이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식습관을 들여야 올바른 성장과 섭식행위로 평생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교육적 가치 또한 지대하므로 영양섭취에 대한 교육과 실천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진정 학교우유급식을 비롯한 우유섭취에 대한 교육은 학생 한명, 한명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육 중 하나라 하겠다. 이는 어느 누구라도 공감하는 점이라 믿는다. 사실 그러한 점을 학교우유급식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는 우리협회 역시,

학교우유급식의 확대를 비단 일시적인 우유의 소비 수단으로서만 보지 않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백색시유 또는 강화유(원유 100%)'만이 가능하던 것이 99.0% 함량 이상의 원유를 가공한 '백색가공유'가 학교우유급식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지만, 우리협회는 '급식을 통한 국민 체위향상과 건강증진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학교급식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공유 포함을 요구하는 개정안에 끊임없이 반대해왔고, 최근 개정된 사항보다 더한 유색 가공유의 급식포함을 요구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며 경계하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몇가지 해결과제를 추려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최대한 학교우유급식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 우리협회는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 마련에 있어 학교우유급식 목표 제시와 더불어 학교 우유급식을 제도화 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그저 중장기 검토과제로 그치고 말았지만 이는 본래 농림부가 반드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 다수에게 향한 균형있는 영양공급의 기회를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우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초래할 소지가 있어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 앞에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의지가 위축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 등 타 관계부처로부터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올바른 영양섭취도 다 교육의 일부이다. 정부가 학교우유급식 확대가 우유소비 기반확충 차원에서, 그리고 균형있는 영양공급원인 우유가 학교급식의 근본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목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소신대로 추진하고 볼 일이다.

학교우유급식 추진현황에 따른 실질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아직까지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우유급식율은 높은 편이나 중·고등학교의 급식율은 매우 저조하여 가장 활발한 성장시기인 중·고교 우유급식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이뤄지고 우유급식 지원이 초등학교에만 해당되던 것이 금년부터 고등학교에까지 확대되었지만, 우유급식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라 한다면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해결도 절실하다. 교통이 용이하지 못한 산간·도서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한 운송비용의 지원, 학생들에게 우유가 최적의 상태로 배식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지원과 토요일 및 방학기간 중 우유급식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역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실 '국민 체위향상과 건강증진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학교급식 실시의 취지하에 우유만한 최적의 식품도 없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우유를 기피하는 학생들의 기호성만을 존중한 나머지 오히려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할 교사들마저 우유급식을 하찮은 잔부정도로 여기는 현상들은 우유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들이다. 이러한 실태들은 학교우유급식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사업 진행에도 치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급식법에 의해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우유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우유소비홍보의 타겟을 중고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눈여겨 볼만 하다. 일명 "우유에게 문자(牛乳に相談)"라는 프로젝트로 연간 10억엔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비록 자의든, 반타의든 중학교 재학기간 중에는 우유를 마시겠지만, 이들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우유섭취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어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지속적인 우유소비가 이뤄지도록 주안점을 맞춘 캠페인에 진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일찍이 의무적인 영양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어 학교를 매개로 한 우유소비 촉진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우유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한 교과서와 교사를 위한 교사용 지도서 활용방안을 체계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를 기점으로 우리협회가 여성분과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확대를 위한 1일 명예교사 활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일부 교사·학생·학부모들의 우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될 뿐 아니라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학생지도 관리 사례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먹거리가 풍족하고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식음료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라 우유섭취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여 자칫 잘못된 식습관에 길들여 질 위험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소아



에서만, 그리고 재학 중에만 우유 소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국민 체위향상과 건강증진 및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매우 적합한 식품, 우유가 학교 교문 바깥을 나선 일상에서도 우유 섭취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함께 하여 건강한

비만 예방법에 의해 청량음료 등의 음료섭취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유음용량이 줄어 칼슘섭취 부족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교내에 과실 함유 50% 이내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는 판매를 금하고 있다. 지난해 코네티컷 주에서도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가당음료, 패스트푸드의 판매를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유난히도 존중하는 외국에서조차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에서 판매하는 음료 하나 하나에도 법으로 관여하는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학교급식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우유급식이 이뤄지려면 조금 학생들의 기호에 어긋나다 할지라도 어느정도의 강제성 개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도 충분히 예상되지만 학교우유급식 활성화는 미래를 위해 격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과제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학교우유급식은 단순히 학교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기관이 해결점을 위해 골몰해야 함은 물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이끌어야 할 시스템인 것이다.

갈수록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체 연령별 인구 분포도가 더욱 뚜렷한 항아리 형태를 띠고 있다. 고령층에 비해 점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그 나름대로의 소비홍보도 중요한 시점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신장과 지속적인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우유소비의 저변 확대 측면에서 한창 성장하는 이들의 우유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소명은 어떠한 주장에 의해 타협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그 해안을 우유를 통한 학교교육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